

“내로남불에 민심이반 … 호남 의원들 목소리 키워라”

원칙 지키는 여당·더 세심한 민생 정책·부동산 정책 수정 시급
대선까지 민심 회복 쉽지 않을 듯 … 공정사회 건설로 부응해야

뉴스초점 - 민주당 위기와 해법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혁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나선데 이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당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향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여당’ 불공정 해소 ‘더 세심한 민생 정책’ ‘부동산 정책 대폭 수정’ 등의 해법을 내놓으며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최고의 혁신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 혁신 과정에 민주당의 뒷발인 호남 국회의원들이 현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당 혁신 최일선에 나서 미래 비전 제시 등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부동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재보궐 선거 원천제공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무리하게 서울·부산시장을 공천한 문제도 선거 패인으로 분석했다. 당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20·30 세대가 결혼 시기 집을 살 수 있도록 기업과 공기업의 이익을 청년세대에게 돌려준다는 획기적인 각오로 부동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되다보니 리더십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리더십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의제는 당론을 빨리 결정해 일관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따른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현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 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검찰 개혁이 블랙홀이 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게 사실이고, 부동산 정책도 규제가 아닌 공급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정책 수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정부와 여당이 민생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민생 정책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 문제와 재보궐선거 전에 터져나온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국민은 ‘현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당내 가장 불공정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불공정 신고센터 개설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통해 불공정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인사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당내를 비롯한 많은 유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 등에 더욱 철저히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선의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정신차리지 못하면 1년 남은 대선까지 등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정부 여당의 개혁 미흡을 지적하고, 중도층은 검찰 개혁 관련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정부내 불협화음에 실망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땅투기 발본색원 및 사법처리, 공정사회 건설 등 민심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목포)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에 정부 여당이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욱 민심에 귀기울이고, 20·30 청년 세대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당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두 시간 가량 당 쇄신을 놓고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다. 이들 모임의 명칭은 ‘더불어 초선 모임’의 약자인 ‘더민초’로 잠정 정했다. 이들은 12일에도 모임을 갖고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고는 전면에서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당 지도체에 너무 ‘순응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KIA 홈 개막전 … “반갑다 야구야” 11일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와 홈 개막 3차전 경기를 하고 있다. 이날 입장한 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합성 등 응원을 하지 못했지만 모처럼 챔피언스필드에 찾아온 ‘야구의 봄’을 만끽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관련 기사 18면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거리두기 1.5단계 5월 2일 까지
순천시 1주일 새 코로나 48명 확진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됐다. 300~400명대 확진자가 연일 발생 중인 ‘인구 밀집지’ 수도권은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다. <관련기사 2면>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람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광주는 소강세를 보이는 반면 전남은 순천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선 지난 9일 1명, 10일 0명, 11일 (오후 6시 기준) 0명 등을 기록 중이다.

전남에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48명이 순천에 집중됐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5일 기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1주일 연장하며 확산세를 누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 점자도서관 건립

내년 상반기 개관 추진

광주에 시각장애인인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이 생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 점자도서관은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1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20㎡,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 시민이 일상에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현대의 도서관’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작품을 선정했다. 시각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촉각, 청각, 후각 등 감각을 고려하고 동선 체계를 단순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서관은 시각 장애인용 점자 도서와 일반 도서를 함께 비치하고 점자도서 열람실, 점자인쇄실, 제본실, 음성녹음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조선대학교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환자와 함께한 50년의 역사 지역과 함께할 100년의 미래

1971-2021

50th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의료광고심의필 제210305-중-119890호]